

하나은행



무(無)에서 시작된 무한한 열망

명상을 부르는 그림들

어떤 피사체도 없는 고요한 화면, 그러나 무(無)의 세계는 달리 말하면
무엇이든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한없이 너른 바다처럼, 끝없는 진공의 우주 공간처럼
속세의 시끄러운 잡음들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화면 속에서
더욱 커다란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7-IV-71 #201',
Kim Whanki,
oil on cotton,
254×202cm, 1971
©Whanki Foundation
Whanki Museum



그림고 그리운 그리움

그리움은 파랗다. 아늑하게 멀어 손 닿을 수 없는 것들의 색, 블루. 김환기의 화면은 그리움으로 파랗게 물들었다. 그리움은, 애절함은 시가 되고 그림이 되었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만남과 덧없는 헤어짐 속에서도 끈을 놓고 싶지 않는 인연을 노래한 김광섭의 시, <저녁에>의 한 구절은 김환기의 그림이 되었다. 1963년, 김환기는 오로지 예술을 위해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훌훌 떠났다. 지천명의 나이에 들어선 김환기의 마음은 다급했다. 뉴욕에서 쓴 일기는 작업과 관련된 한두 줄의 문장이 전부이다. 숨가쁘게 이어지는 작업일지 속에 눈에 띄는 것은 "셀루리안 블루, 그린 블랙, 프러시안 블루, 블루 블랙..." 푸른색의 이름들이다. 뉘앙스가 다른 푸른색의 이름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국에서야 교수이자, 잘나가는 화가였지만, 당시 뉴욕에서의 김환기는 한국이라는 가난한 제3국에서 온 화가에 지나지 않았다. 원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한국미술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그는 뉴욕에 머물렀다. 이산 김광섭의 시 <저녁>을 늘 마음속으로 노래했다. 차라리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산과 두고 온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그는 그림을 그렸다. "친구의 편지에 이른 아침부터 뻐꾸기가 울어댄다 했다. 뻐꾸기 노래를 생각하며 종일 푸른 점을 찍었다." 마침내 그리움과 향수는 푸른 점들이 되어 1970년 한국 최초의 추상미술이라 일컬어지는 점화(點畵)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로 완성된다.

김환기가 최종 선택한 색은 가장 깊은 한국적인 푸른색, 쪽빛이었다. 그가 고른 푸른색은 동해의 깊은 물색과 한국의 유현(幽玄)한 하늘을 닮았다. 화가는 밀칠을 하지 않은 생광목에 유화가 동양의 수묵화처럼 번져가는 운연(雲煙) 효과를 내며 점을 찍었다. 그리움에 떨리는 듯 조금씩 변진 점들로 이루어진 화면에는 한국의 산과 하늘, 한국인의 얼굴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하나하나의 점은 두고 온 이들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며 또 만날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절제와 금욕 사이, 얼굴을 내미는 열망

화가 박서보의 하루는 수십 년 동안 변함없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0번도 넘게 종이에 연필로 선을 긋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작품의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것이며 더 나아가 무심하게 내리긋는 선은 영감을 수신하는 과정이다. 박서보에게 있어서 예술은 하나의 수행 과정, 혹은 과정 자체의 드러냄이다. 박서보의 <묘법>시리즈는 우연히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반 초등학교생이던 아들이 글씨를 예쁘게 쓰기 위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지우고 다시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1970년대의 초기 <묘법> 시리즈의 영감을 떠올렸다. 묘법(描法, Ecriture)이란 말 그대로 선을 긋는 방식이다. 선은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서보의 선들은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않았고, 다만 선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 되었다. 왜 글을 써야 하는지, 왜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 자체가 되었다. 결국 그는 그림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선을 긋는 행위만 남겼다. 그것은 '나를 비우기 위한 그림'이 되었다. 종이에 선묘를 한 밑그림이 캔버스에 옮겨질 때는 그렇게 수행을 하는 자신조차 없애버린다. 수행하는 자의 자아조차 소멸되어 세계와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대화엄의 경지다. 이 대목에서 새로운 질문이 등장한다. 그토록 수행이 중요하다면 왜 종교로 귀의하지 않는 것일까? 질문에 대한 답도 질문 속에 있다. 바로 종교로 귀결되지 않는 수행이 바로 예술이다. 삶을 사랑하고, 삶의 한가운데에 있고 싶기에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술이 된다. 금욕과 절제를 위한 수행의 마음에서 무수히 그어 내린 선들 사이에 숨길 수 없는 삶의 열망처럼 평평한 면이 함께 얼굴을 드러낸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박서보의 작품은 무채색에서 다채로운 색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한강변 아파트에서 인상 깊게 목격했던 서울의 스카이라인, 야경의 조명 아래 빛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박서보의 금욕은 차라리 지리멸렬한 세상에서의 난잡한 활보를 거부하고, 오로지 내면에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행위인 것이다.

'Ecriture no.
89-79-82-83',
Park Seo-Bo,
pencil and oil on hemp cloth,
194.5×300cm, 1983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Untitled 73-7', Chung Sang-Hwa,
acrylic on canvas, 165×115cm, 1973
Photograph by Kim sang-ae
Pending Acquisition,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Smithsonian Institution

국제 미술계의 화두, 단색화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단색화>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병렬 전시인 <단색화>전은 최근 3년간 국제 미술계에서 동시대적인 관점을 통해 다각적으로 재조명된 단색화에 대한 전시와 연구, 출판, 세미나, 퍼포먼스를 총괄하는 장이다.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한 흐름이었던 단색화와 단색화의 대표 작가인 이우환, 박서보, 정상화, 하중현, 김환기, 정창섭, 권영우의 작품을 국제 무대에 선보이는 중요한 자리다.

일정 5월 8일~8월 15일

장소 팔라조 콘타리니 플라냐, 베니스

내용 한국 단색화 운동의 대표적 작가들의 주요 작품 70여 점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을 향하여

정상화의 화면에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정상화는 그리지 않는다. 그의 캔버스는 칠하고 떼어내고 다시 물감을 올린 무수한 흔적만이 있을 뿐이다. 캔버스 위에 고령토를 칠해서 완전히 마르면 뒷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긋고, 그 선에 따라 캔버스를 수직 수평 혹은 사선으로 접는다. 그 균열에 따라 고령토 조각을 떼어내어 그 부분들에 아크릴릭 물감을 칠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그러나 물감을 바를 때도 한꺼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생각하는 리듬에 따라서 캔버스의 부분부분에 조금씩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물감의 색층이 너댓 번에서 많이는 열여섯 번까지 누적된다. 이로써 캔버스에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작업의 단위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캔버스이고, 매 순간 조그만 사각형 도형을 떼어내고 붙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화면에는 무한성에 대한 감각이 쌓인다.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필멸의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깊을수록 무한에 대한 갈망은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무한에 대한 갈망은 추상화를 탄생시킨다. 그림 속에서 집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집 중 겨우 하나를 그리는 것이다. 형태는 유한하다. 무한은 오로지 반복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침-점심-저녁, 봄-여름-가을-겨울이 반복되는 과정,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 이 모든 과정. 그 하나하나 단위는 유한하지만, 그 연쇄는 무한하다.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떤 태양도 어제의 태양이 아니며, 어떤 사람도 과거의 누구와도 지구상의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다. 정상화가 만들어낸 조그만 조각들은 단 하나도 닮지 않았다. 그의 화면에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유사한 것의 무수한 연쇄이다. 그것은 우주의 무한한 순환을 닮았다. 아마도 그의 작품을 보면서 프랑스 생테티엔 미술관 로랑 헤기 관장이 "반복되는 시간성과 우주적인 공간성이 담겨 있다"고 말한 이유일 것이다. 정상화의 흰색은 모두 다르다. 엄마의 젖 같은 따뜻한 유백색, 차가운 눈 같은 설백색, 전통 한지 색으로 누렇게 바랜 책에서 느낄 수 있는 지백색, 거친 무명천의 원색인 소백색, 여름 날 냇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차돌 같은 백색 등등. 정상화의 흰색을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다채로운 색의 그림을 단색화라고 부른다는 것이 타당할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의 세계는 무한히 크다. 정상화의 그림을 보면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제한적인 것 속에서 우리는 가장 풍부한 것, 가장 무한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

글·이진숙 | 진행·이소진 | 디자인·김재석 | 도움·국제갤러리

글을 쓴 **이진숙**은 러시아의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의 작품들을 만난 뒤 미술의 세계에 매료되었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러시아 국립인문대학 미술사학부에서 말레비치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콰르타에서 에코까지 미술 생태계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은 <위대한 미술책>을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는 <미술의 빅뱅> (러시아 미술사)가 있다.